

# 삼성전자, 안정성 집중... '엑시노스 2500' 수율개선 박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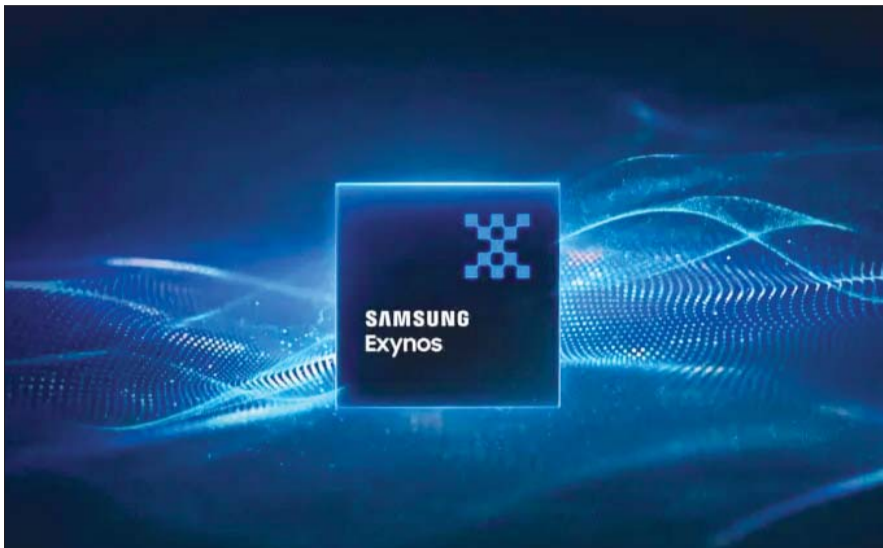
〈차세대 모바일 앱 프로세서〉

GPU 성능·CPU 코어 수 낮춰 수율↑  
이르면 내달부터 웨이퍼 테스트  
경쟁사 격차 좁히고 안정공급 목표

삼성전자가 차세대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앱) 프로세서(AP) '엑시노스 2500'의 수율(양품의 비율) 문제 해결을 위해 일부 사양을 조정하는 전략을 선택했다. 하반기 출시 예정인 '갤럭시 Z 폴드7'에 원활히 탑재하기 위해 품질 보다는 생산 안정성을 우선시한 것으로 풀이된다.

24일 업계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엑시노스 2500의 수율 개선을 위해 그래픽 처리장치(GPU) 성능을 낮추고, 일부 중앙처리장치(CPU) 코어 수를 낮춰 칩 생산 수율을 높이도록 했다.

삼성전자는 최근 엑시노스 2500의 양산을 시작했으며, 이르면 3월부터 웨이퍼 테스트를 진행할 예정이다. 웨이퍼 테스트는 초기 생산된 칩의 성능과 안



삼성전자의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앱) 프로세서(AP) '엑시노스 칩'.

/삼성전자

정성을 검증하는 단계로, 이를 통해 일정 수준 이상의 수율을 확보한 후 본격적인 공급이 이뤄질 전망이다.

엑시노스 2500은 삼성의 최신 3nm(나노미터·10억분의 1m) 게이트올어라운드(GAA) 공정을 적용한 제품으로, 기존 4nm 공정 대비 전력 효율과 성능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CPU 및 GPU 성능 향상 ▲인공지능(AI) 연산 능력 개선 ▲카메라 처리 성능 강화 등을 목표로 개발됐다.

엑시노스 2500은 애초 '갤럭시 S25' 시리즈에 탑재될 계획이었으나, 수율 문제 등으로 하반기 출시될 갤럭시 Z 폴

드7에 처음 탑재될 예정이다.

업계 관계자는 "삼성이 엑시노스 2500의 수율을 높이는 것은 긍정적인 신호지만, 결국 소비자가 원하는 것은 안정적인 성능"이라며 "폴더블 스마트폰의 완성도를 높이기 위해 안정성을 우선시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하지만 업계에서는 삼성전자가 대만 TSMC와 비교해 기술적으로 뒤처져 있다는 점에서, 단순히 수율 개선만으로 시장 경쟁력을 확보하기에는 한계가 있다고 지적한다.

삼성전자의 3나노 공정 칩 생산 능력은 월 5000개 수준에 그치며, 수율은 50% 미만인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TSMC는 이미 3나노 공정에서 높은 수율을 확보하며, 애플의 A17 바이오닉 칩에 3나노 기술을 적용하는 등 높은 수율을 바탕으로 퀄컴, 미디어텍 등 주요 고객사를 유지하고 있다.

실제로, 지난해 말 '빅벤치6'의 벤치마크 결과에 따르면 엑시노스 2500은

퀄컴의 '스냅드래곤 8 엘리트'보다 낮은 성적을 기록했다. 엑시노스 2500의 싱글코어 점수는 2358점, 멀티코어 점수는 8211점으로, 스냅드래곤 8 엘리트의 싱글코어 점수 3196점, 멀티코어 점수 1만1115점보다 낮았다. 엑시노스 2500은 싱글코어에서 36%, 멀티코어에서 19% 낮은 성능을 보인 것이다.

이에 삼성전자는 ▲3나노 공정 기술력 강화 ▲전력 효율 개선 ▲AI 및 이미지 처리 기술 고도화 등을 통해 경쟁력을 확보할 계획이다. 장기적으로는 퀄컴, 미디어텍과의 격차를 좁히고, 갤럭시 스마트폰에 엑시노스 칩을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는 생태계를 구축하는 것이 목표다.

삼성전자 관계자는 "3나노 공정의 안정화와 수율 개선을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며 "엑시노스 2500을 통해 모바일 AP 시장에서 경쟁력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혜민 기자 hyem@metroseoul.co.kr

## 넥슨, 'FC온라인' 구단 프랜차이즈 도입

올해 e스포츠 대회 개편안 발표  
FSL로 새단장... 개인전 중심  
상금 규모도 4배 확대... 10억 규모

넥슨이 자사가 서비스하는 정통 온라인 축구게임 'EA 스포츠 FC 온라인'의 올해 대회 개편안을 발표했다.

24일 넥슨이 발표한 e스포츠 대회 개편안은 ▲구단 프랜차이즈 도입 ▲리그 생태계 구축 ▲전문성 강화가 핵심이다.

넥슨 측은 "안정적으로 지속 가능한 리그로 확장하고, 보는 재미를 넘어 대회에서 창출된 서사와 게임의 연계를 통해 e스포츠 본연의 재미를 극대화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번 개편안에 따라 올해부터 T1, 젠지(Gen.G), 케이티 롤스터(KT Rolster), 디알엑스(DRX), 비엔케이 피어엑

스(BNK FEARX), 농심 레드포스(Nongshim Redforce), 디엔 프리스(DN FREECS), 디플러스 기아(Dplus KIA) 등 8개 구단이 프랜차이즈로 대회에 참여한다. 각 팀에는 작년 대회에서 활약했던 선수들을 비롯해 신예들이 대거 소속돼 각축전을 펼칠 예정이다.

특히 전체 리그 구조를 체계적으로 개편해 각 리그 레벨에 따라 유기적으로 연결되는 생태계를 구축한다. 국내 최상위 리그인 'eK리그 챔피언십'을 'FC 온라인 슈퍼 챔피언십 리그(FSL)'로 새롭게 단장하고, 축구게임 특성에 맞게 경기 방식이 개인전 중심으로 변경된다.

연간 2회 진행되며, 8개팀에서 4명씩 출전해 총 32명의 프로 선수들이 최정상 자리를 놓고 대결을 펼친다.

'FSL'과 같은 기간에 진행되는 2부 리그 'FC 온라인 퓨처스 리그(FFL)'는 프로지망생, 구단 예비 선수 등 32명이 참여하며, 리그 종료 후 이적시장을 통해 'FSL' 출전 기회를 얻을 수 있다.

이와 함께 세미 프로 레벨의 오픈 리그를 연간 6회 이상 개최해 프로 레벨과 연계하고, 대회 지원 플랫폼을 통해 지자체, 공공기관 등에서 개최하는 다양한 아마추어 대회도 지원한다.

대회 개편 이후 첫 리그인 '2025 FC 온라인 슈퍼 챔피언십 리그 스프링'은 오는 3월 31일부터 6월 14일까지 잠실 DN 콜로세움에서 진행된다. 올해는 총 상금 규모를 예년보다 네 배 확대한 10억원 규모로 운영되며, 상위 2개팀에게는 국제대회 'FC 프로 마스터즈' 출전권을 제공한다.

/김서현 기자 seoh@

## 이노그리드, 전북銀 '클라우드 통합관리' 지원

택클라우드 및, 내부시스템과 연동

클라우드 컴퓨팅 및 디지털 전환(DT) 전문 기업 이노그리드는 전북은행의 '클라우드 통합관리시스템 도입' 사업을 수주했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주요 인프라와 가상화 관제를 체계화해 안전 관리 사각지대를 해소, 안정적인 전자 금융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기획된 프로젝트다.

이노그리드는 전북은행의 기존 가상화 자원을 효율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자사의 지능형 하이브리드 클라우드 관리 플랫폼(CMP) '택클라우드'를 제공하고, 내부시스템과의 연동을 지원할 예정이다.

택클라우드 및 인공지능(AI) 기술

기반의 지능형 하이브리드 클라우드 자원 관리를 돕는 플랫폼이다. 클라우드의 현재 상태를 진단하고 용량과 비용을 최적화하는 등 맞춤형 관리가 가능하다. 또 각 클라우드에 직관성이 뛰어난 사용자 인터페이스(UI)를 동일하게 적용하고, 클라우드의 상태를 시각화해 모니터링 대시보드 형태로 보여준다.

본 사업을 통해 전북은행은 기존 레거시 시스템을 비롯한 프라이빗·퍼블릭 클라우드 등에 대응 가능한 기반을 마련하고 분산된 클라우드 자원을 통합 관리해 운영 효율성을 높일 것으로 기대했다.

이노그리드는 자사의 클라우드 비전 및 로드맵을 전북은행과 적극 공유하며 최적의 클라우드 활용 전략을 제시한다는 계획이다.

/김현정 기자 hki@

## KT클라우드 자사 GPUaaS에 엔비디아 H200 적용

KT클라우드 자사 서비스형 그래픽 처리 장치(GPUaaS)에 엔비디아 H200을 적용한다고 24일 밝혔다.

KT클라우드 자사는 인공지능(AI) 인프라가 필요한 국내 공공기관과 AI 스타트업에 대상으로 탄력적인 GPU(그래픽 처리장치) 자원 이용이 가능한 GPUaaS를 제공 중이다.

이를 통해 KT클라우드 자사는 ▲단기간 대응량·고사양의 GPU 공급이 요구되는 학습 영역에 특화된 'AI 트레인' 등 엔비디아 기반의 다양한 상품을 선보여 왔다.

KT클라우드 자사는 기존 H100 중심으로 운영되던 AI 트레인 서비스에 H200을 적용해 한층 강화된 성능을 구현한다는 계획이다.

/김현정 기자

## LG CNS, 금융기업에 맞춤형 AI 모델 제안

'금융 맞춤형 AI 평가 도구' 개발  
29가지 평가 지표 등으로 구성

LG CNS는 생성형 인공지능(AI) 도입을 원하는 금융 기업을 위한 '금융 맞춤형 AI 평가 도구'를 개발했다고 24일 밝혔다.

이는 LG AI 연구원의 엑스원 3.5, 메타의 라마, 알리바바의 쿼원 2.5를 포함한 수십개의 개방형 거대 언어 모델(LLM)을 평가해 벅킹, 보험, 증권 등 금융 서비스에 가장 적합한 AI 모델을 찾아주는 도구로, 29가지 평가 지표와 약 1200개의 데이터셋으로 구성됐다.

주요 평가 항목은 ▲금융 지식 기반으로 추론하는 능력 ▲수학적 추론 능력 ▲복잡한 질문 이해력 ▲문서 요약 능력 ▲금융 용어 이해도 ▲AI 에이전트 사용 능력 등이다.

/김현정 기자

LG CNS는 인공지능이 답변하기 어려워하는 금융 관련 추론 문제들을 29개 평가 지표에 적용해 성능 검증 정확도를 높였다고 설명했다.

LG CNS는 이 평가 도구를 통해 금융 기업들이 AI를 도입할 때 최적의 LLM 선정부터 커스터 마이징, 안정적인 운영까지 금융권 특화 생성형 AI 적용 단계에서 차별화된 솔루션을 제공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현신군 LG CNS 대표는 "금융 서비스에 생성형 AI를 도입하고자 하는 기업의 가장 큰 고민은 어떤 AI 모델이 서비스에 가장 적합할지 파악하는 것"이라며 "LG CNS의 금융 특화 AI 평가 도구는 금융 기업들의 고민을 빠르게 해결할 수 있는 최적의 솔루션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 “'KT 홈캠 안심'으로 사생활 유출 걱정 끝”

군사 기밀 관리 수준의 보안 기능

KT는 군사 기밀 관리 수준의 보안 기능이 적용된 가정용 홈캠을 출시한다고 24일 밝혔다.

KT가 이번에 선보인 'KT 홈캠 안심'은 가정용 스마트 보안 카메라로, 보안을 대폭 강화했다는 특징을 지녔다.

KT 관계자는 "홈 CCTV 이용자가 늘면서 해킹으로 인한 사생활 유출 우려도 커지고 있다"며 "이에 군사 기밀 관리 수준의 암호화 규격(AES 256)을 통과한 KT 홈캠 안심을 내놓았다"고 말했다.

KT 홈캠 안심은 허용된 사용자만 접속할 수 있도록 제한하는 방식으로 외부 접근을 차단하고, 모든 기능을 제한하는 개인 정보 보호 모드를 통해 보안을 강화했다. KT의 네트워크 보안 환경까지 적용해 안정성을 높였다.

KT 홈캠 안심은 클라우드 저장 서비스를 기본으로 제공해 실시간 영상 확



KT 홈캠 안심.

/KT

인이 가능하다. AI 기반 모션·소리 감지 기능을 통해 특정 영상을 저장하고 내려받을 수도 있다.

KT 홈캠 안심은 ▲육아 ▲반려동물 관리 ▲따로 사는 부모님의 위급 상황 기록 ▲1인 가구 실시간 보안 점검 등에 활용 가능하다.

이와 함께 양방향 통화 기능을 지원해 휴대전화 없이도 집에 있는 가족과 통화할 수 있으며, 홈캠의 카메라 버튼을 누르면 밖에 있는 보호자에게 직접 전화를 거는 것도 가능하다.

/김현정 기자